

# 정부, 축산업 전면 개편 '선진화' 시동

〈편집 : 미트저널〉

정부가 구제역 발생 이후의 대한민국 축산업 재건을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착수에 들어갔다. 방향은 ▲방역메뉴얼 개편 ▲조직정비 ▲축산업 선진화 등 크게 3가지이다.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3월 24일부로 구제역이 진정돼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제역 경보단계를 '심각'에서 '경계'로 한 단계 낮추기로 했다. 구제역 발생에 따른 위기 경보 단계는 '관심(주변국 발생)→주의(국내 발생)→경계(확산)→심각(3개 시·도)'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.

## 1. 방역체계의 획기적 개편

### 가. 초동 대응체계 강화

- 초기 진단 기능 및 통제 강화 : 발생 초기단계부터 '심각단계'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
- 중앙·지방·군(軍)간 공조체계 구축 :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설치,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 제도화
- 평시 대비태세 강화 및 방역 전문 인력 양성 :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(CPX) 실시, 현장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

### 나. 국경검역 강화

- 공항 및 항만 검역시스템 강화 : 축산인에서 축산관계자 및 일반국민으로 소독대상 확대, 축산관계자 D/B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 구축
- 농축산물 반입 관리체계 강화 :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-ray,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보다 강화
- 가축전염병 대응 국제 협력 강화 :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(CPX) 실시, 현장 방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

### 다. 축산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상시예찰 강화

- 축산농장, 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상시관리·점검 체계 구축 : 축산농장 출입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등
- 축산농가·생산자단체 자율방역체계 구축 : 농협중앙회·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 예찰 및 방역활동 수행, 민간 전문가, 우체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'구제역 박멸대책위원회' 구성해 자율 방역 계획 수립 등
- 외국인 근로자의 철저한 관리 : 축산농장 불법 체류자 고용 근절 위해 단속 강화, 수요조사 등을 통해 합법 외국인력 적정 공급 추진(11년도 농축산업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 4천500명)

### 라.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

-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감액기준 마련 : 상황별·발생시기별·규모별 적정 보상기준 마련, 가격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보상금 지급 방지를 위해 보상폭 설정 등
- 매몰보상금 지급시 지자체 책임분담 추진 : 방역주체인 지자체가 매몰 보상금 등 일부 부담
- 방역의무 이행여부와 정책자금 지원간 연계 강화 :

차단방역 시설 미설치 축산농가에 대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배제 추진 등

### 마. 친환경적 감염가축 처리 방안 강구

- 단순매몰 방식에서 소각·렌더링 등 처리방법 다양화
- 매몰지에 대해 3년간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 강화
-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, 매몰처리 관련 규정 보완 등을 통해 환경부담 최소화

### 바. 방역조직 체계 개편

- 농·축·수산물 검사와 검역관련 3개 기관을 통합한 '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'(가칭) 설립(국립수의과학검역원, 국립식물검역원,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)
- 축산발주지역 농·축 권역별 가축슬빙방역사 5개소를 설치해 지방 방역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력 제고
- 시·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과 기능을 확충하고 유사시 중앙조직과의 연계 강화
- 지방방역기관 연구·검시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 보강 및 기능 강화
- 주요 가축질병 발생시에는 중앙 방역기관의 지원·자리를 반도록 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
- 방역능력 제고를 위해 수의과 대학 신입동물수의사 육성 강화
- 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 조기 구축(12년)
- 국경검역 농·축·수산물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
- 고위험지역 및 조동방역 서비스 체계 구축
- 시사체 농·축 방역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

## 2. 예방접종 계획

- '백신접종 청정국' 지위 획득 목표
- 3차 접종(약 2천,000농가)은 2차 접종 6개월 후 선두수 새생종
- 다른 유형(총 7개)의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및 인접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A, O, Asal형을 혼합한 백신 접종 지가접종 다뉴얼 가련 및 교육 강화



- 백신집중 가축에 대한 예찰검사 및 관리 강화 : 동물방역통합시스템(KAHIS) 내 '구제역 백신 전종관리 시스템'을 구축하여 백신 추진상황 종합적으로 관리
- 백신 전문 연구센터 설립 및 국내 백신생산 검토 : 민·관 구제역 바이러스 공동 연구 추진, 종사바이러스 개발, 백신제조기술 등을 감안 국내 백신 생산 검토

## 3.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

-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: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 도입,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지원, 대상·시기·방법 등 구체적인 허가제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 후 4월 말까지 확정
- 친환경 축산업 육성 : 사육·운송·도축 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유도를 위해 HACCP 인증, 친환경 인증 농장 제도 등 정비
- 축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: 분산 설치·운영 중인 축산관련 전후방 산업을 지역단위로 거점화, 도축장, 분뇨처리시설, 돼지 인공수정센터 등 관련시설 통합함에 따른 폐업지원 등 추진

\* 위드스인 내용은 농림수산물식품 홈페이지(<http://www.maff.go.kr>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